

#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등 18건 심사

## 남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열었다. 개회 첫날인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이 날 발의된 2건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중 서성부 의원 발의 건은 가결, 박미순 의원 발의 건은 기립표결을 거쳐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부결되었다. 지난 9월 18일엔 상임위원회 안전심사를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 중 총무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친 안건은 지난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날 김현미 의원은 '영유아 정서행동발달지원 전문 상담센터 설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서성부 의원은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 및 7.1.자 인사발령'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였다. 지난 제27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8대 의원 정수가 15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감소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일수를 규정하여 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

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종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중복 조항은 삭제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교육지원 예산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 범위 및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조정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친환경 급식경비 개념을 정의하고 인용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지원 심의 시 남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정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읍면동 명칭 변경 추진자침' (2016.3)에 따라 우리 구 복지허브와 사업 추진 12개동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8.3.27. 대통령령 제28715호)되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자치법규 규제 우선정비 대상 중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용자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2019년 7월 1일부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법 개정내용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원안가결)

－대연동 '남구도서관', 용호동 '본포도서관' 등 2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나 규모 협소로 자료의 이용 및 보존 공간이 부족하고 장서 수 또한 부산지역 평균에 비해 87.5% 수준으로 지리적 접근성과 인구 통계적 특성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우암·감만·용당 일대 주민의 교육 문화 및 정보 지식 습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여 독서문화 확대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각종 안전사고 우려 및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영유아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기 설치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12.31.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남 구 의 회 의 원 발 의

제27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복지증진, 도시재생 등의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 발의가 이어졌으며, 심도 깊은 안건 검토로 내일 있는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노력을 다하였다.

백석민 의원(대표발의) 외 3명의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일수를 개정하여 회의 운영 효율화를 꾀했다.

박구슬 의원(대표발의) 외 2명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병준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한 남구의회 의원 전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



백석민 의원



박구슬 의원



이병준 의원



강건우 의원



김철현 의원



김근우 의원

백석민 의원 남구의회 운영 개정조례안

박구슬 의원 의원 윤리강령 등 개정조례안

이병준 의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강건우 의원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김철현 의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김근우 의원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리 조례안

공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였다.

강건우 의원(대표발의) 외 12명의 의원은 주택 노후화와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빈집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의 우려가 높아져, 관내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범죄,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및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7명의 의원의 찬성을 받아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근우 의원(대표발의) 외 2명의 의원은 제8대 의원 정수가 15명에서 14명으로 1명 감소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순화용어를 정비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근우 의원은 8명의 의원의 찬성을 받아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운행 계획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를 위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위 조례안들은 제277회 임시회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9월 20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됐다.



남구의회·남원시의회 9년째 교류행사

남구의회(의장 이강영, 아랫줄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는 지난 8월 29일, 30일 양일간 국내교류 기관인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 아랫줄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의 의원을 초청하여 제8대 의회로 새롭게 구성된 양 의회간 상건례 시간을 가지는 등 교류행사를 가졌다.



2019년도 하반기 '남구의회 의회교실'

남구의회는 지난 9월 16일 대연고등학교 1학년 30명을 대상으로 '남구의회 의회교실'을 열었다. 이날 이강영 의장의 인사와 강건우·김근우 의원의 의회의 기능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학생들은 모의의회 체험을 하였다. (윗줄 오른쪽에서 일곱번째 이강영 의장, 여덟번째 강건우 의원, 아홉번째 김근우 의원)

## 5분 자유발언



김 현 미 의원  
(비례대표)

2015년 보건복지부가 서울에 거주하는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영유아 10명중 3명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이나 우울감 등의 정서행동 문제를 보였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정서행동 장애 아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현장에서도 정서행동 장애를 겪는 영유아 수는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부모는 맞벌이와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양육경험 부족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이 높고, 영유아 역시 외동으로 자라다보니 부모

## 영유아 정서행동발달지원 전문 상담센터 설치

의 과보호와 관계경험부족으로 타인의 감정 파악 및 자신의 감정 표현도 서툴러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서 개인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행동의 반복으로 결국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의식과 함께 자존감이 떨어져 사회적 부적응 아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정서적인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유아기의 정서행동 문제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2007년부터 학생 정서행동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모에게 알리고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남구에서도 청소년 상담센터와 청소년 진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 문제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영유아의 정서행동 문제는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기의 경험이 일평생 동안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영유아를 위한 전문 상담센터 설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 동네 즉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표면적인 사랑과 관심이 아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아말로 진정한 국가수준의 영유아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행복이나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행복한 가정, 나아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희망하면서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 고통을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영유아 전문상담센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 구 정 질 문



서 성 부 의원  
(대연1·4·6)

질문: 지난 7월 1일자 부당 인사를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특정인을 무리하게 승진시키려다 보니 총무국장 직무대리라는 사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승진하여야 할 의사무과장과 동장 2분도 직무대리 상태의 어정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남구 전체 조직 안정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로 인해 6급, 7급, 8급으로의 승진이 연속적으로 좌절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조직의 확대 개편 법적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데 규정 어디에도 인구 30만이 되지

## 하반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문제점

못한 우리 구가 5개 국으로 2개국을 증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부산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안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의회에 기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자진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인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구정장) 앞에서 열심히 하고, 뒤에 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 등 부메랑이 되어 올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어겨 가면서까지 총무국장 직무대리로 발령하다 보니 10명 가까운 분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무위원장으로서 7백여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회를 무시한 이번 총무국장 인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하는 등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집행부 답변 : 7월 1일자 인사는 선의의 경쟁체제와 열심히 일하는 동기자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데 규정 어디에도 인구 30만이 되지

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많은 이견들을 공식사회의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고의 고통을 겪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직원 인사와 관련해 구정질의하는 과정 또한 남구의회와 남구청이 진일보면 모습이라 여기고 이런 치열한 토론을 통해 우리 남구청의 인사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풀어가도록 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4월30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자치분권 실현과 변화하는 환경과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남구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과 지침, 내고장알리미(지방행정종합 공개시스템) 공시 등에 근거해 남구는 30만 이상 50만 미만 구간에 해당되어 개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